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12월 첫 번째 29권 21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501정보여단 부여방문
미 공군 한 측에 감사패 전달
3면 군관련 소식
용산지역대 군가가창대회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연말결산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문병장의 Soccer Mania
8면 안녕하세요
연말결산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년 1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 육군 주임원사 한국 방문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추수감사절 연휴에 때맞춰 케네스 프레스톤 미육군주임원사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올해 1월 15일 제13대 미육군주임원사로 임명된 그에게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번 방문은 한국에서 연휴를 보내는 병사들의 사기증진과 수년이내에 이루어질 주한미군의 변화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프레스톤 주임원사는 "앞으로 주한미군에게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러한 변화가 병사 개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장교뿐만이 아니라 부사관, 상병, 일병도 예외 없이 이에 포함된다. 또 우리 모두가 그룹을 이끌어 나갈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스톤 주임원사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지금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각자의 임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했다.

24일 카투사신문과 인터뷰를 했던 프레스톤 주임원사는 305병참중대 부대식당에서 병사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AFN을 둘러보며 특별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쇼에 출연하였다. 그리고 트로이 웰치 주한미군 주임원사와 함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방문하여 2사단 전몰자들의 추모식에 참석, 한국전쟁에서 숨져간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카투사들에 대한 질문에 프레스톤 주임원사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난 방문에서도 느꼈지만 뛰어난 군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카투사들과 군인행동강령이나 복무신조에 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복무신조를 잘 숙지하고 있었다. 특히 군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에 관해 유창하게 말하는 카투사들의 모습은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Spc. Wesley Pollet/ KORO Visual Information Support Center

11월 22일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사열한 장병들과 함께한 케네스 프레스톤 미육군 주임원사.

끝으로 한국의 병역의무제도를 잘 아는 프레스톤 주임원사는 "미군들과 함께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카투사들이 2년간의 병역의무를 끝내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들이 군생활을 잘 해냈듯이 사회생활도 잘 해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탬이 되리라 믿고 있다"며 카투사들을 격려하였다. ■

일병 김도호

외국인 스님의 특별한 불교강연

카투사 신문 최의진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 무심 스님.

지난 11월 23일 용산기지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모이어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무심 스님의 강연이 있었다. '한국 불교에 대한 명상'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 날 강연은 참가한 여러 장교들 및 카투사, 미군 불교 신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카투사 중 미 8군 본사 33 공병대 소속의 조경민 일병은 "인사과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알려주어 비록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평소 불교와 명상에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 외국인 스님이 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 오늘 강연에 오게 되었다"고 강연에 참가한 동기를 밝혔다.

이 날 강연을 한 무심 스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신교도 집안에서 자랐다고 한다. 무심 스님은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던 중 숭산 선사를 만나 미국에서 4년간의 수행 후 1986년에 출가하여 한국에서 조계종의 구족계를 받았고, 지금은 숭산 선사를 보좌하여 전 세계로 포교 여행을 하며 화계사 국제선원 원장으로 있다고 한다.

약 40분간의 강연 중 무심 스님은 신라시대의 원효대사의 당나라로의 여행 중 동굴에서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신 유명한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유명한 명언을 청중들에게 풀이해주었다. 또 이날 강연의 주제인 '한국 불교의 명상' 이란 제목에 걸맞게 이미 세계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 한국의 품질 좋은 자동차, 전자기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한국 불교의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연이 끝나고 참가한 인원들은 다

2면으로 계속...

501 정보여단 백제유적지 답사

카투사 신문 김도호

고란사 앞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501정보여단원들과 지원대장 문상옥 소령(오른쪽).

지난 11월 23일 501정보여단 본부중대, 532정보대대의 카투사와 미군 일행은 백제유적지 답사를 위해 충청남도 부여시를 방문하였다.

미군들이 한국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하기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답사는 중대규모로 종종 이루어졌던 한국문화체험행사의 연장으로, 처음으로 여단의 부대원들이 함께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부소산에 도착한 501 정보여단 일행은 본부중대 인사과 권정훈 일병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산을 둘러보았다. 처음으로 부여를 방문한 권일병은 "지원대장님이 오래전부터 한미우호증진에 관심이 많았고 행사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주어져 답사가 이루어졌다. 분기별로 계속 이와 같은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사실 부대 안에 있을 때는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미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행사를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백제문화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부소산에는 나당연합군이 침공하여 백제가 멸망할 당시 여인들이 백마강에 몸을 던진 전설로 유명한 낙화암을 비롯하여, 평시에는 궁궐의 후원으로 이용되다 왕궁을 방어하는 최후의 성곽이 된 부소산성, 낙화암에서 떨어진 백제여인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된 고란사, 고란초의 전설로 유명한 고란약수터 등이 있다. 특히, 흔히 삼천궁녀로 알고 있는 백제여인들의 전설이 실제로는 수백 명에 불과하지만 백제사람들이 예부터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비롯된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일행 모두에게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여단원들은 이어서 무령왕릉과 공주국립박물관을 둘러본 후 일정을 마쳤다. 532정보대대 알파중대 부지휘관 클리블렛 에드워드 중위는 "이번 답사는 매우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느끼기 위해 양국의 군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미국보다 훨씬 오래된 한국의 역사를 통해 미군들이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일병 김도호

미 공군 한 측에 감사패 전달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는 최근 주한 미 공군51전투비행단 헌병대대와 미7공군사령부 특별수사대(OSI)로부터 한미 군사 동맹 강화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공동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증정식에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헌병 참모, OSI 파견 대장, 한미 헌병 대원 등 양국 장병 100여 명이 참석해 그간 한국 공군 헌병대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감사패 증정식에서 미 공군51전투비행단 헌병 대대장 리처드 중령은 "오산기지 방호 작전, 정보 공유 등 한.미 간 확고한 업무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해 대테러 대비 태세를 완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는 미 공군 기지 경계태세 확립에 일조하고 각종 행사시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는 한편 주기적 친선 행사를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또 연합 초소 근무, 순찰과 주간 전술 토의를 비롯, 최근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한 한미 연합 대테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작전과 수사 분야에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국방일보 제공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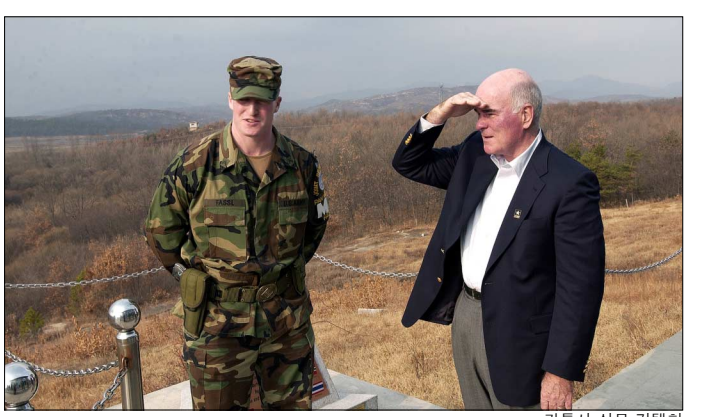
미 공군51전투비행단 헌병대대장 리처드 중령이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장 정병수 중령에게 공동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불교강연

1 면에 이어서...

음 만남을 기약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 후 주최 측에서 준비한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시식하며 무심 스님은 참석한 카투사를 포함한 미군 불교 신자들과 강연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한 청중들 중 1통신여단 41대대 362중대 차형석 상병은 "원래 불교 신자라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한다기에 참석했는데, 강연을 듣고 보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졌다. 또 무심 스님이 30년 동안 한국 불교의 명상에 대해서 배웠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사람이 한국 불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며 청강한 소감을 말하며 이런 좋은 기회가 일년에 한번 뿐 아니라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

일병 최의진



카투사 신문 김택현

지난 11월 24일 프란시스 하베이 신임 미육군장관이 공동경비구역 제3전망대에서 북한주민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하베이 장관은 새로 취임한 이래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여 사흘동안 전국에 걸쳐 각 부대를 방문하였다.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 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3134/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YumT@usfk.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 이세희
편집장
상병 염태성
기자
일병 신희석
일병 김도호
일병 최의진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Yum, Tae-sung
Staff Writers
Pfc. Shin, Hee-suk
Pfc. Kim, Do-ho
Pfc. Choi, Eui-jin
Special Assistant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 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3134/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YumT@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호부터 염태성 상병이 카투사 신문 편집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DSN 723-3134

E-mail: YumT@usfk.korea.army.mil

논산훈련소를 추억하며 - 군가 가창 대회

지난 11월 26일 용산지역대 사우스포스트의 교회에서 용산지역대 소속 여단급 부대들의 군가 가창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산지역대의 총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군본사 수송대 소속의 한원태 상병은 "이런 대회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지원을 하였고, 다른 15명의 장병들도 자원을 해서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미8군 군악대의 사병들과 함께 화음 및 율동도 맞추는 등 준비를 많이 했다.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참가 동기 및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 8군본사 작전참모부 소속의 백성식 이병도 "평소에 힘 있고 우렁찬 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와중에 군가대회를 개최한다는 지원자 모집소식을 듣고 동기들과 함께 출전을 하게 되었다.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연습했고 서로 개인활동을 자제하면서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군가 가창 대회는 이 날을 위해 준비한 8개 팀의 장병들의 그 동안의 노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들은 또 평소 한국 군가를 부르거나 들을 기회가 흔하지 않은 카투사 장병들에게 '전선을 간다', '최후의 5분' 등의 군가를 열창하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추억을 되살려주었다. 이날 최우수상의 영예는 17항공여단에게 돌아갔고, 1통신여단과 8군본사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정보과 소속의 김상혁 상병은 "부대원들이 1주일에 4시간씩 2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노력의 결과가 좋아 굉장히 기분이 좋다. 가장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군인다운 자세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군가 대회에 참가한 18명 모두 3박4일 포상휴가를 받았다"며 휴가를 유용하게 잘 쓰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1통신여단 본부중대 소속의 박영선 일병은 "부대원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참 열심히 해주었는데 그런 노력에 걸맞는 상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군가 가창 대회를 지켜본 17항공여단 지원대장 손경섭 소령은 "재미있게 잘 보았고 아주 뜻 깊은 자리였던 것 같다"고 말하며 "카투사로서 한국 군가를 생활화하는 여건이 부족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군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국육군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17항공여단의 지원대장이기도 한 손소령은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정훈교육 전후에 10대 군가를 연습해왔다. 평상시에 조금씩 연습을 했던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일병 최의진

카투사 신문 최의진

독특한 퍼포먼스가 돋보인 8헌병여단의 공연 모습.

카투사 신문 최의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17 항공여단팀이 율동과 함께 군가를 열창하고 있다.

카투사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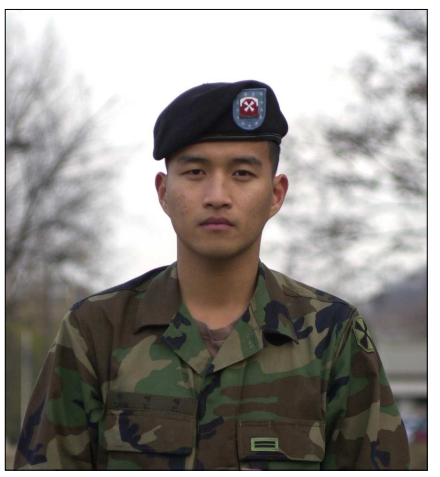
한 해를 돌아보며.

미 8군 공병참모부
병장 김세환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04년도 마무리되고, 12월을 맞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03-4기 4구대 동기들아, 모두 잘들 지내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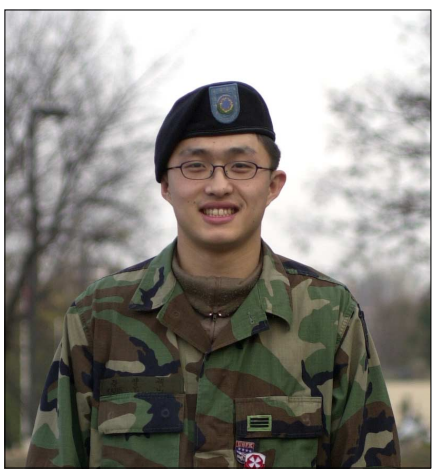


미 8군 공병참모부
일병 천영필

올해, 2004년.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중학교때부터 지내오던 미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군생활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논산에서부터 함께 해 온 동기들, 전입오면서 알게된 여러 선임분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미군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병참모부
상병 강양제

어느덧 작년의 춥고 힘들던 이병생활로부터 훌쩍 1년이 지나 다시 쌀쌀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1년 조금 넘는 군생활 동안 특별히 소위 말하는 '이뤄 놓은것'은 없지만, 근심걱정을 털어버리고 조직에 몸을 맡겨 인생을 관조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더 남았습니다. 제대하는 그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부대밖을 밟을수 있도록 남은 군생활 잘 보내겠습니다.

미 8군 공병참모부
상병 나기학

무엇보다도 한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군에서는 이병 일병 상병까지 올라온 한해였고 사무실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별하고 사귀고 할 수 있어서 보람 있던 한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 22년 숙원 여자친구를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남은 올해의 기간동안 더 노력해 볼까 합니다. 모든 카투사 여러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12년 지기 군생활까지 같이 한 한순규병장 제대 아쉽지만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유엔사경비대대 본부중대:팽팽한 긴장감속에 최전방을 사수하는 카투사들

Area I

-2사단 2-17포병대대:백전백승의 포병부대

-2사단 제9기계화보병연대 1대대:'Manchu'의 칭호가 빛나는 막강한 화력의 부대

-2사단 공병여단 44공병대대 82장비지원중대:올해의 카투사 배출로 검증된 단결력의 부대

-2사단 공병여단 본부중대: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카투사들

Area II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미연합의 주최

-18의무사 121병원중대:모든 주한미군의 건강을 총괄하는 부대

-94헌병대대 557헌병중대: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지킨다. 매사에 능한 카투사들

-17항공여단본부중대:가족같은 분위기로 카투사와 미군이 하나가 된 미8군의 날개

-8인사행정사령부:대외활동이 두드러진 한미친선의 선두주자

-AFN-KOREA:주한미군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카투사들

-카투사교육대:최고가 되기위한 교육대인 동시에 모든 카투사의 마음의 고향

-미8군/주한미군 공보실:새로운 소식을 신속 정확히 알리는 카투사들

Area III

-2항공대대:항공관련 다방면의 업무에 능통한 카투사들

-1/43방공포병대대:주한미군 유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안보를 책임지는 카투사들

-62화학중대:선후임간의 원만한 관계가 돋보인 부대

-18의무사평택지역대:3지역대 병력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

Area IV

-23화학대대:전 미군의 하나뿐인 화학대대이자 한반도 유일의 한미연합 합동대대

-728헌병대대:특별경호대를 자랑하며 대구지역사회와 화합하는 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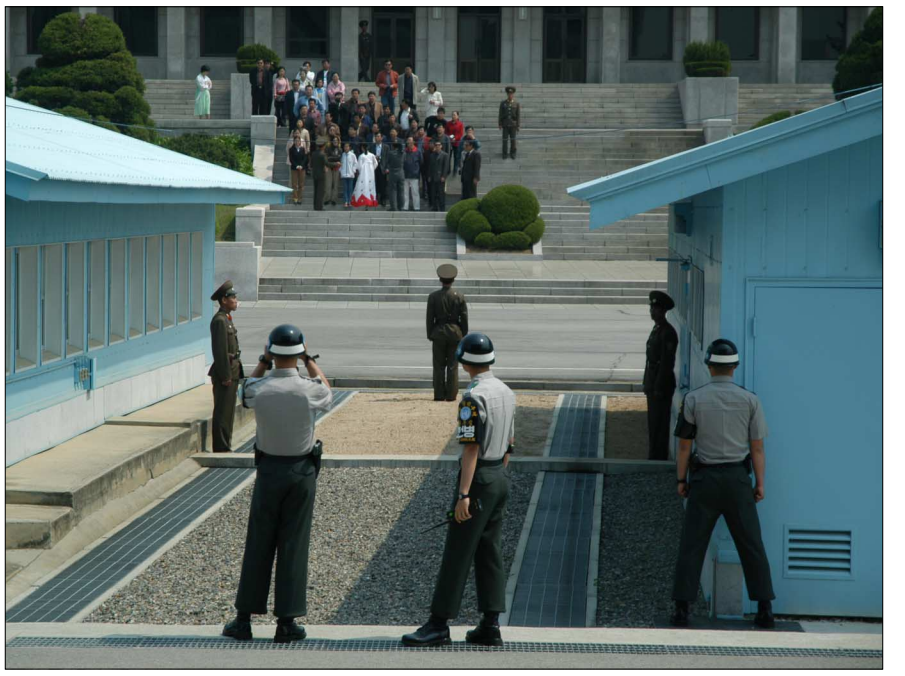
부대탐방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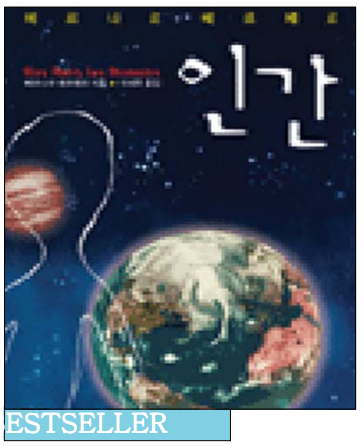
미8군 공보실의 카투사들이 맡고 있는 카투사 신문의 기자라는 보직은 여러 가지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서 많은 카투사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사실인데 (물론 실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전국에 근무하는 여러 카투사들의 생활상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 부대탐방을 맡았던 것만은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가까이는 엎어지면 코 닿을 만 한 거리에 있는 부대부터 멀게는 훈련시가 아니면 방문할 수 없는 대구지역대의 부대들까지 다양한 부대만큼이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을 보고 들었지만,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같은 게 아닌가 싶다. 그곳에는 눈물어린 병사들 간의 전우애와 인종과 국경과 계급을 초월한 사랑과 우정이 있는가 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뒤틀려버린 인간관계와 서리가 내릴 만큼 차가운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있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무의미한 멸시도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역시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병사들과, 딱 그만큼의 개성이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은 필자의 기억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림으로 남아있다.

낯선 도시의 낯선 캠프 안에 있는 낯선 스낵바에서, 초면이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우리 카투사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음식의 맛은, 어디를 가나 앞으로 다시는 맛보지 못할 것 같다. ■

상병 염태성





인간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인간'은 프랑스에서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면서 이미 30만 부 이상 팔린 책으로, 베르베르가 처음 시도한 <희곡 스타일의 소설>이다. 우주의 어느 행성의 유리 감옥에 갇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경이와 서스펜스에 가득 찬 2인극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관습들을 유머러스하게 성찰하고 있다.

다나와

www.danawa.co.kr

오프라인 시장의 CPU에서 부터 마우스까지의 각종 PC 부품가격정보와 상품정보를 쉽고 빠른 검색 방법으로 제공한다. 각 PC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가격들이 매일매일 신속하게 수록, 비교되어 가장 저렴한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구매 가능한 신제품에 대한 정보도 어느 사이트보다 빠르게 등록, 제공되고 있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Biz – Whiz

제 1 장

카투사 요원들의 수준에 따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2004년 12월 1호부터 winglish.com이 제공하는 교육 교재 Biz - Whiz를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비서와 나누는 대화

Mr. Martin이 Mr. Yoshida 씨를 방문해서 그의 비서와 나누는 대화를 봅니다.

A: 안녕하세요, 뭘 도와 드릴까요?

B: 안녕하세요, 전 Steve Martin 입니다. Yoshida 씨를 뵈러 왔습니다.

A: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Yoshda 씨께 오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A : 죄송하지만 Yoshida 씨가 통화중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하시는군요. 그 동안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B: 감사합니다. 설탕은 넣지 말아 주세요.

-약 10 분 후-

A: Martin 씨, Yoshida 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B: 대단히 감사합니다.

Possible Translation)

A: Good morning, sir. May I help you?

B: Good morning. My name is Steve Martin. I have an appointment with Mr. Yoshida.

A: One moment, please. Why don't you have a seat Mr. Martin? I will tell Mr. Yoshda you're here.

- A minute later -

A : I am sorry, sir, but Mr. Yoshida is on the phone right now. And he said it will take some time. Would you care for some coffee?

B: Thanks, no sugar, please.

-Approximately 10 minutes later-

A: Okay, Mr. Martin. Mr. Yoshida is waiting for you now.

B: Thank you very much.

Business Dictionary)

1. corruption : The allegations of corruption by the police are being investigated.

2. cost : The cost of the new machine is getting higher.

3. cost : How much will it cost to repair the computer?

번역)

1. 경찰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그 진술에 대해 조사중이다.

2. 새 기계의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

3.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Interview

요즘은 우리나라도 예전과는 달리 직원을 수시 채용합니다. 고용주와 interview를 하고 난 후 고용주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물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What are the job responsibilites of ~? 에 대해 확실히 연습 하셔야 합니다. 아래 대화에서 A는 interviewee(지원자)이고 B는 interviewer 입니다.

Case 1)

A: 제가 할 일에 관해서 약간 여쭤봐도 될까요?

B: 물론이죠. 뭘 알고 싶으세요?

A: 판매원의 업무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B: 판매원은 고객을 도와주고 현금 계산기를 다룰 줄도 알아야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A: 물론이죠. 할 수 있습니다.

Possible Translation)

A: Can you tell me a little about the position?

B: Sure. What do you want to know?

A: What are the job responsibilities of a salesperson?

B: A salesperson helps customers and uses a cash register.

Do you think you can do that?

A: Yes, no problem. I'm sure that I can handle it.

Case 2)

A: 안전요원의 임무가 뭐지요?

B: 정문을 지키고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요. 할 수 있겠어요?

A: 물론이지요. 정문을 지키고 신분증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ossible Translation)

A: What are the job responsibilities of a security guard?

B: A security guard guards the building entrance and checks I.D.

Can you do that?

A: Of course! I can guard and check I.D. cards at the building entrance.

Business dictionary)

1. cost effective : We have to try to find out more cost-effective methods of production.

2. cost of living : Is the cost of living in Seoul higher than Taipei?

3. cost price : We had to sell off our old stock at cost price.

번역)

1. 우리는 비용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2. 서울의 생계(활)비가 타이페이보다 더 높은가요?

3. 우리는 오래된 주식을 원가로 팔아야 했다.

＊칭찬하기

팀웍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인 회사에선 자신의 업적보다 남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료직원을 칭찬하는 표현 방법을 함께 연구합니다.

셀리 : 사장님 말씀드릴게 있어요.

사장: 뭔가요, 말해봐요.

셀리 : 사장님, 이번 실적 향상은 저 때문인 거 아시죠. 제가 밤낮 없이, 점심 식사마저도 거르며 일한 결과에요.

사장 :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셀리 : 솔직히 누가 능력이 되나요?

사장 : 셀리양, 난 그들의 능력을 보고 선발했어요.

셀리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Possible Translation)

Sally : Boss, I would like to talk with you for a moment.

Boss : Go ahead. What is it?

Sally : Sir, we made this sale because of me. I worked night and day on this project. I worked through lunch breaks.

Boss : Did no one else help you?

Sally : Actually, no one else is qualified here.

Boss : Sally, they were qualified when I hired them first.

Sally : I don't think so.

■ 카투사 기고문

문병장의 Soccer Mania

-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된 우리

2004년 11월 17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는 오랜만에 5만 명이 넘는 관중으로 인해 열기가 뜨거웠다. 바로 독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몰디브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파 랭킹 24위와 136위의 경기에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관중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면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2006 독일 월드컵에 진출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런 중요한 경기를 그냥 놓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군 빅토리아 프리스 상병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미 8군 공병참모부에 새로 부임해온 베네카 발리 대위에게 축구장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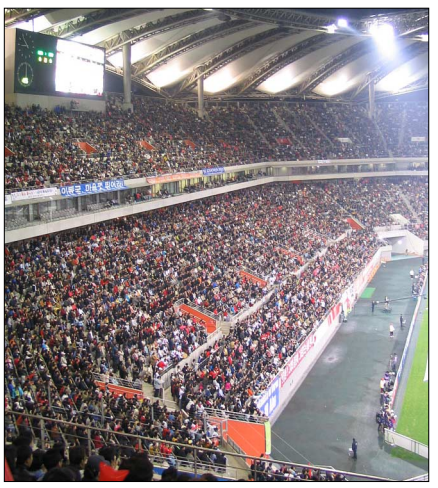
모두들 찬성을 하게 되어 우리는 미군 4명, 카투사 4명해서 총 8명이 한반도 최고의 축구 이벤트를 즐기게 되었다.

입장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다!

전쟁이었다.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정말 축구관람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전쟁이었다. 일단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는 지하철은 이미 만원이었다. 서 있을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했다. 경기장에 내려서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대략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인파들이 입구로 몰려서 줄이 엄청나게 길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진행 요원들의 신속한 처리 덕분에 20분 만에 입장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축구장을 찾으면서 이렇게 많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본 것은 2002년 브라질전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서로 그 안에서 일행을 놓칠까봐 긴장하면서도 신기해하는 미군들의 표정은 대한민국의 축제를 즐기기에 충분한 얼굴이었다.



이날 이례적으로 많은 관중이 찾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환상적인 경기장과 경기.. 그리고 골 !

경기장에 들어선 우리는 화려하게 펼쳐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아름다움에 할말을 잊었다. 꽉 꽉 들어찬 관중석하며, 붉은 물결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붉은 악마들. 발리 대위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경기장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했더니 감동을 받았다면서 경기장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프리스 상병도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 이곳저곳을 가리키면서 무척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낯선 나라 한국의 화려한 건축미에 대해서 소개해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여서 필자는 누구보다 흐뭇했다.

미군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문인성 병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여느 경기처럼 붉은 악마들의 선창으로 시작한 구호! '대~한~민~국~', 미군들은 서로 서로 대한민국의 정확한 발음을 물어가면서 열심히 응원을 따라했다. 그리고 이내 한국축구가 가진 매력에 흠뻑 취해 있는 듯 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미군들은 일어서서 익숙한 애국가와 태극기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으며, 우리 카투사들은 거수경례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은 연신 몰디브의 골문을 두드리는 듯 했으나 결정적인 골 찬스를 자꾸만 놓쳐 안타깝기만 했다. 그러나 후반에 들어서자 김두현의 통쾌한 중거리 슛이 터졌다. 경기장의 5만 관중은 축제 분위기였고, 우리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정신없이 박수치고 환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나라인 미국 다음으로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그렇다. 서먹서먹한 사이도 축구경기 관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친구 사이로 발전할 수 있고 인종, 종교, 국적을 떠나서 정말 하나로 단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다.

후반에 이동국이 헤딩으로 한골을 더 터뜨렸다. 미군들은 이미 몰디브는 우리 상대가 아니라면서 다음 경기는 또 언제 있는지 묻는 등 아까 골이 안 터지던 전반전과는 달리 여유가 넘쳤다.

경기를 지켜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한국인의 성격과 문화를 축구장에서 다 볼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들이 경기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군들에게 설명해주자 그들은 우리 육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듯 했다.

우선 경기 시작 전에 취타대가 입장하는데 반갑게도 국방부 소속의 요원들이었다. 그리고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이동국 선수도 대한민국 육군 체육부대인 상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육군 병장이다. 발리 대위는 이러한 사실에 무척 놀랍고도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응원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활약하고 있는 ROKA(대한민국 육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듣고 눈으로 보니 그 효과는 더욱더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정한 한미유대활동이 아닌가 싶다.

결국 경기는 2-0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하면서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미군들은 연신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면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오자는 말을 필자에게 했다. 기회가 있다면 필자도 남아 있는 군생활동안 한국축구를 통해서 미군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좋은 추억을 많이 알려주고 남겨주고 싶다.

90분 경기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전철은 올 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감동적인 축구경기의 여파는 가실 줄 몰랐다.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군대에서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신기하다고 몇 번이고 생각을 했다. 미군들에게 한국축구를 소개하고 함께 관람 한다는 것. 아무에게나 부여된 기회가 아니기에 그 가치는 필자에게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다른 카투사 전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친한 미군이라든가 한국 생활이 낯선 미군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긴장감을 풀고 쉽게 다가서게 하는 방법은 바로 축구장에 데려가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 전에 미8군 공병참모부에 부임해온 발리 대위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더욱 많이 가지게 되어서 무척 뿌듯한 마음뿐이다. ■

미 8군 공병참모부 병장 문인성

MOVIE

내셔널 트레져

감독:존 터틀타웁

주연:니콜라스 케이지

미 건국 초기 대통령들이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3대째 찾고 있는 집안의 후손 벤자민(니콜라스 케이지). 대를 이어,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나서는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두뇌 플레이와 미로처럼 얽혀져있는 수수께끼,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시작되는 의문의 열쇠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TOP CHARTS

불치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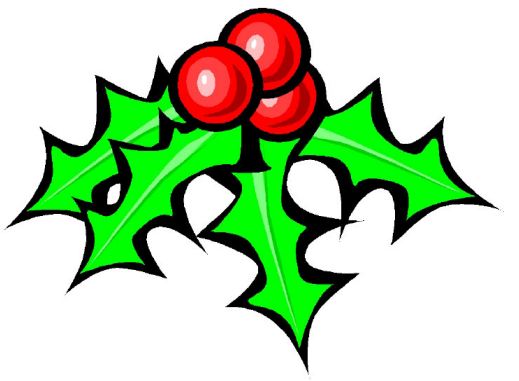
휘성

2.It's Raining/ 비
3.휠릴리 / 이수영
4.하하하쏭 / 자우림
5.심장병 / 이승환
6.열병 / 신화
7.날 그만 잊어요 / 거미
8.중독 / 김종국
9.무정 / 이승철
10.문신 / 세븐
11.사람찾기 / 유리상자
12.삭제 / 이승기
13.너에게로 또다시 / 서영은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상병 김택현

막내 시절의 '안녕하세요' 취재부터 모든 것을 총괄하는 편집장의 직책까지 이번 1년동안 신문사 내에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껴온 것 같다. 카투사 신문을 만드는 데에 지금까지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뿌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일을 후임들에게 위임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후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병 신희석

'카투사 신문'을 위해 많은 글을 써 왔지만 기자는 늘 사건과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기초아래 썼던 기사들과는 달리 나만의 글을 쓴다는 색다른 기분으로 글을 시작해본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이 곳 미8군 공보실로 전입하게 되어 여름을 지나 달콤하고 언제 왔다갔는지 짧기만 한 가을을 보내고, 벌써 찬 바람 매서운 한 겨울의 중턱에 서있다.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왔나 아련한 추억 같기만 한 시간들이지만 아직은 지내온 날들보다 지내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았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부대와 행사 취재차, 그리고 카투사 신문에서 가장 인기 많은 8면의 연예인 인터뷰를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많은 경험을 하였다. 많은 것을 배웠고, 군 입대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다루게 되고, 정말 감사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카투사 전우들을 위해 새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일병 김도호

신병일 당시까지 새로운 부대와 환경이 나를 설레게 했다면 지금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이다. 공보실의 업무는 '날마다 새롭다'는 표현이 감히 허용된다고 생각된다. 카투사 신문을 만드는 일을 날마다 조금씩 익혀갔던 기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고, 단순 반복 업무를 떠올렸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재 보직은 군생활뿐만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연예인을 직접 보는 행운을 누리는 '안녕하세요' 취재부터 기획기사와 보도기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나며 배우는 일도 다양하게 변해갔다. 아직도 업무를 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고 계속 배워나가야 하겠지만 올해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내년에는 어떤 부대를 방문하여 군입대후 첫 새해를 맞이할지 기대해본다. 끝으로 카투사 신문을 위해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일병 최의진

올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전입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덤벙대고 자잘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차차 일이 손에 익어가는 것을 보며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하면 내년에는 신문사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듯 싶은 마음에 기쁘다. 그 동안 '안녕하세요' 코너를 맡으며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 특히 되도록이면 카투사들이 더욱 선호하는 연예인을 섭외하느라 굉장히 분주했던 기억이 남는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경험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한층 더 기자다운 기자로 성장하고 싶다.